



◇지암정사 낙성·봉불 법회에 앞서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이종욱 스님 사상, 업적연구 본격화

20일 평창 지암정사 낙성·봉불식 연구회 설립 및 항일투쟁 재조명

구한말 불교수호와 발전에 앞장서 온 지암 이종욱 스님(1884~1969)의 사상과 행적에 대한 연구가 본격

화 된다. 강원도 평창 지암정사주지 성담은 10월 20일 대웅전에서 낙성·봉불식을 봉행하고 지암 스님에 관한 연구를 도모할 '지암사상연구회'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성담 스님은 "다른 큰스님들의 업적은 오늘날 재조

명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암 스님의 업적은 친일논쟁 등으로 묻혀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암 스님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지암사상연구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내년 1월 지암 스님 탄신 120주년을 맞아 지암사상연구회 회장, 임원진, 연구위원 등 조직을 구체화하고, 가을쯤에는 지암 스님의 항일운동과 불교발전 위한 노력을 입증해줄 학술대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암사상연구회는 △지암 스님에 관한 연구 사업을 위한 자료수집·연구·정리·출판 △교단연구, 복원사업 △지암 스님의 항일투쟁 재조명 △연구기금 조성 및 재가인 연구자 지원 △장학사업 △불교사, 불교문화 연구지원 △불교 대중화, 현대화, 실생활화 위한 영불선원 개설 등의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난 지암 스님은 13세에 양양 명주사로 출가했다. 이후 강원과 명진학교에서 불법을 두루 수학한 뒤 출가 본사인 월정사로 돌아와 강원을 세우고 초발심자경문을 강의하는 등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3·1 운동과 더불어 본격적인 항일운동에 뛰어들어 스님은 '27결사대'와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일제의 탄압이 악랄해지자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임시정부에 참여, 내무부 참사와 국내특파원,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조직적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지암 스님은 또 1936년 조계종 종무총장(종무원장)으로 재임하며 일제가 일본인 사찰인 박문사를 조선 불교 총본산으로 삼으려는 계획에 맞서 전국 본사 주지들과 협의해 우리 전통 양식 범당인 조계사 대웅전을 세우고 조선불교의 총본산으로 삼았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스님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주문진 포교당 봉사 발원 등 국가와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공로가 인정돼 1977년에는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았다.

평창=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경북 활성화 위해 경승 나섰다 대구' 경북 경승실장 간담회



경찰 불자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 경북지역 경승실장 간담회(사진)가 지난 10월 17일 동대구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불교 경승단장 도영스님, 경북지단장 법조스님, 대구지단장 지성스님을 비롯해 대구, 경북지역 각 경찰서 경승실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승 조직을 정비 및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영스님은 "대구, 경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경승 위축이 양호한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찰 불자회 구성에 경승들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원규기자

직지사 외교사절 초청 템플스테이

경북 구미시장이 직지사에서 28개국 주한외교사절을 초청, 템플스테이를 연다. 구미시청은 10월 31~11월 1일 1박2일간 직지사서 여는 템플스테이에 28개국 주한외국대사관 상무관 부부 60여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이날 템플스테이는 예불, 발우공양, 다도, 참선, 사찰안내, 태극권 수련, 산행순으로 진행된다.

참가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이다. 김원우기자

종단협·회장배 축구 대회 성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자)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가 공동주최한 제1회 종단협 회장배 축구대회가 18일 중앙승가대 운동장에서 열렸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총무원, 한국불교기자협회, 불교tv, 조계사등 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축구대회에서 축구종목은 태고종총무원이 우승, 조계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여자 발아구는 한국불교기자협회가 우승, 조계사가 준우승했다. 김원우기자

이날 행사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종단협 사무국장겸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등 10여명의 주요내빈과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죽림정사 범종 조성 타종법회 개최



장수 죽림정사(조실 불심도륜)는 10월 14일 범종 조성 및 타종법회(사진)를 개최했다.

법회에서 불심도륜스님은 법상에 오르지 않고 남북 통일과 동서평화가 이루어져 성불인연이 되어지지 못함을 자탄하며, 무설법으로 대신했다.

이날 행사에는 흥교스님, 대우스님, 인도 대성석가 사주 법신스님, 김상우 전 장수군수, 장재영 장수군수, 광복회 이영철 지부장, 보훈처 황준선 지청장, 박용근 전북도의원,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한명욱 회장,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유종혁 이사장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기자

우리결 우리 신도

"믿고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서울 석가사 대원행보살

"석가사가 제2의 고향이죠. 10년 동안 석가사에서 마음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중학교 옆 사이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산을 오르면, 길의 끝에 석가사가 나온다. 10여년 전 석가사가 처음 자리할 때부터 이곳을 지켜온 대원행 보살(49, 석가사 사무장).

대원행 보살의 지난 10년은 석가사와의 인연으로 가득하다. 공양주 보살부터 시작해 5년 전부터는 다른 일을 모두 그만두고 석가사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 심지어 가족들의

기도도 열심히 하기로 유명하다. 대원행 보살은 90년대 초 섬유사업 부도로 생활고에 시달릴 때, 서울에 올라와 석가사에서 기도로 아픔을 달랬다. 사업실패 후 앞전데 후격으로 대원행 보살의 남편이 당뇨로 실명 위기에 처하고, 자식들도 대학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어 생활이 쉽지 않았다. 대원행 보살은 '부처님 가피' 덕분에 최근 10년의 생활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석가사에서 3일 기도부터 시작해 7일, 100일 기도를 하면서 남편의 건강도 좋아지고 실업상태에 있을 때도



◇법당에서 백일기도 중인 석가사신도들. 사진 왼쪽부터 정진행 보살, 대원행 보살, 이영자 보살.

어려울때 석가사 인연, 부처님 가피 입어 간병하며 108배 할 정도로 신심 대단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락동에서 석가사 근처로 이사했을 정도다.

석가사 스님과 신도들의 대원행 보살에 대한 믿음도 대단하다. 지난 10년간 보살의 신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스님은 대원행 보살에게 늘 초부터 석가사 사무장이라는 소임을 맡겼다. 예나 지금이나 공양간, 법당, 사무실 어느 곳 하나 대원행 보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 석가사 신도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운 좋게 집값이 뛰여 생활비가 충당됐어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사업도 하고 있고, 자녀 둘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 부처님 가피를 토틈히 입었죠."

3년 전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하고 있다. "믿고 기도하면, 어느새 믿는 데로 가고 있는 자신의 길이 보인다"고 말하는 원행. 보살은 앞으로 대학에서 불교공부를 본격적으로 해 법사나 포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오유진 기자



추천의 말
일각스님 석가사 주지

대원행 보살은 석가사가 장건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석가사를 지켜온 터춤패갑 같은 신도입니다. 석가사 안팎에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디. 무엇보다

다른 신도들에 촉매제 역할

신생활을 열심히 하는 점이 대원행 보살을 추천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10년 동안의 신생활이 보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대원행 보살의 이런 신생활이 다른 신도들이 신심을 키우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초대합니다

BBS 대구불교방송 개국 7주년 및 안동·포항중계소 개국 축하음악회·리셉션

삼보에 귀의합니다. 대구경북 200만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태어난 대구불교방송이 오는 11월 11일로 개국 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교방송 청취가 어려웠던 안동과 포항지역에 중계소를 개설해 경북 동북부 대부분 지역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대구경북 불교방송으로 거듭 태어남을 계기로 개국 7주년과 안동·포항중계소 개국 축하 행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11월 6일(목요일)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
- 축하음악회 : 18:00 ~ 18:50
- 문 의 : (053)427-5114
- 축하리셉션 : 19:00 ~ 20:00(사회 : 김병조)

※ 이 행사는 대구불교방송 홈페이지 www.dgbbs.co.kr로 인터넷 생중계 됩니다.

